

자녀관계와 자아통합감 세대간 거주형태별 분석

Self-Integrity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ren

저자 (Authors)	최형주, 김정석 Hyung Ju Choi, Cheong-Seok Kim
출처 (Source)	한국인구학 36(2) , 2013.6, 89-103(15 pag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2) , 2013.6, 89-103(1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인구학회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18835
APA Style	최형주, 김정석 (2013). 자녀관계와 자아통합감. 한국인구학, 36(2), 89-103
이용정보 (Accessed)	동국대학교 175.123.***.116 2020/07/15 14: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자녀관계와 자아통합감: 세대간 거주형태별 분석*

최형주** · 김정석***

이 연구는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이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자녀와의 관계는 세대간 지원교환형태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로 접근한다. 세대간의 거주형태는 이러한 세대간 관계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며, 동시에 세대간 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자녀동거노인과 자녀별거노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은 동거자녀 뿐 아니라 별거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거하는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세대간 지원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다는 자녀와 서로 지원을 주고받을 때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녀동거노인들은 자신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별거노인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인들도 별거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별거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지원교환이 없을 때 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떠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노인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와 지원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단어: 자아통합감,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세대간 지원교환형태, 세대간 거주형태

I. 서론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은 노화와 함께 수반되는 신체적 변화,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역할 상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 등에 잘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장혜경·손정남·차보경, 2004; 김후경·이순철·오주석, 2007; 송지은·Mark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지원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 allblue4@naver.com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 chkim108@dongguk.edu

2007; 조윤주, 2007; 이미란·김선희, 2012).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은 흔히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된다. 자아통합감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변인들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또한 경제적 제약을 초월하여 현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장성옥 외, 2004; Edikson, 1997; Hannich, 2011).

자아통합감은 노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더불어 보다 포괄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노인이 가져야 하는 이상적인 심리상태의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의 한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여인숙·김춘경, 2006; 장성옥 외, 2004).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적지 않다(김희경, 2006; 김지현·강연옥·유경·이주일, 2009; 이미란·김선희, 2012; 장혜경 외, 2004; Fishman, 1992; James and Zarrett, 2006).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심리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자녀나 가족간 관계를 고려한 연구들이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자녀나 가족을 친척, 친구, 이웃 등과 함께 사회적 지지의 한 차원으로만 다루고 있다(김순이·이정인, 2009; 민기채·이정화, 2008; 이정희, 2010).

비록 세대간의 전통적 규범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한국사회에서 성인자녀는 노인들에게 여전히 삶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김정석, 2001, 2007; 손정연·한경혜, 2012). 자녀와의 관계가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도 노인의 심리적 상태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기원, 2001; 강유진, 2003; 공수자·이은희·하미옥, 2005; 이민아·김지범·강정환, 2011), 노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평가하는 데에도 자녀는 지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4) 등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이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충분하다.

이 연구는 자녀와의 관계를 그에 대한 만족도와 세대간 지원교환형태, 즉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상황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동거노인과 자녀별거노인을 분리함으로써 세대간 거주형태별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간의 동별거여부가 기존의 노인과 성인자녀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한편, 현재와 앞으로의 관계를 제한하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II. 자녀관계와 자아통합감

자녀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석(2001)의 ‘가족관계의 질 척도구성’을 참고하여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와 세대간 지원교환형태에 근거하여 접근하기로 한다.¹⁾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주관적 척도이며, 세대간 지원교환형태는 객관적 차원의 척도이다. 지원교환형태 등 객관적 지표들은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인 평가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의 척도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연구에서도 많이 강조되어 왔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녀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손의성, 2006; 이민아 외, 2011).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자아통합감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세대간 지원교환은 그 흐름, 내용,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석과 김익기(2000)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대간 지원의 흐름(flow) 측면에서만 접근하고자 한다.²⁾ 이들은 세대간 지원교환형태를 자녀와 서로 지원을 주고받는 쌍방향,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수급형, 여전히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기만 하는 공급형, 그리고 서로간의 아무 지원교환이 없는 무교환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대간 지원교환형태에 비추어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을 분석한 연구들은 찾기 힘들지만, 세대간 지원교환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김정석·김익기, 2000; 윤현숙, 2003; 이형실, 2003; Lee and Weber, 2000; Lowenstein, Katz and Gur-Yaish, 2007; Yunong, 2012).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일방적인 수급보다는 세대간 지원이 쌍방향으로 일어날 때

1) 김정석(2001)은 바람직한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여섯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① 가족관계자의 존재, ② 가족의 외형적 긴밀성, ③ 가족으로부터의 수혜, ④ 가정에서의 역할, ⑤ 가족간의 태도 및 가치의 일치, ⑥ 노인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스스로 내린 주관적 평가와 판단. 앞의 다섯 가지는 가족관계의 객관적 상황이나 조건을 반영하며, 여섯 번째 개념은 주관적 차원의 가족관계를 뜻한다.

2) 세대간 지원의 흐름 외에도 노인이 자녀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등)과 정도(지원교환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지원교환형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의 정도를 측정해내는 것은 어려우며, 내용을 세분하여 모두 반영하면 분석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흐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자녀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노인들에게서 자아통합감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해진다.

Ⅲ. 자료 및 사례분포

이 연구는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노년기의 자아통합감과 함께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규모의 대규모 설문조사로 확보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자녀동거노인과 자녀별거노인을 구분하여 접근한다. 자녀동거노인의 경우는 동거자녀와 별거자녀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지원교환형태를, 그리고 자녀별거노인의 경우에는 별거자녀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을 분석한다. 주어진 자료에서 자녀가 적어도 1인 이상 생존하고 있으며 분석항목에 유효한 응답을 한 총 13,711사례가 추출되었다. 이 중 자녀동거노인은 3,675사례, 자녀별거노인 10,036사례이다.

다음의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그 사례분포를 보여준다. 주어진 자료에서 자아통합감은 김정순(1988)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현재 생활의 만족', '생에 대한 태도', '지난 인생 수용', '지혜로운 삶', '죽음과 노령 수용'의 5가지 영역에 걸쳐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³⁾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3개의 문항(4번, 9번, 10번)을 제외하고 7개 문항의 합계 점수를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의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7개 문항의 Cronbach's α 는 0.819이며,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총점은 35점이다. 사례들의 자아통합감은 자녀동거노인과 자녀별거노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들이 적으며, 평균연령이 70~71세에 머물고 있다.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수준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근무한 경험은 적다. 주관적 건강평가에서는 40%정도가 건강한 편으로 응답하였다. 사회활동 참여정도는 친목단체(계모임, 동창회, 동기회, 향우회, 종친회, 노인정 등),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합창단, 연극 등), 스포츠레저단체(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참여하고 있

3) 이들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변수와 사례분포

		(단위: %)		
		자녀동거노인	자녀별거노인	전체
사례수 (명)		3,675	10,036	13,711
자아통합감 7문항 (평균)		20.2	20.5	20.4
성	여성	64.2	57.2	59.1
	남성	35.8	42.8	40.9
연령 (평균)		71.3	70.8	70.9
학력	무학	34.3	30.0	31.2
	초등학교	37.2	40.3	39.5
	중학교	13.7	12.9	13.1
	고등학교 이상	14.8	16.8	16.2
관리직/전문직 여부	경험없음	94.4	93.3	93.6
	경험있음	5.6	6.7	6.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	58.2	59.9	59.5
	건강한 편	41.8	40.1	40.5
사회활동 참여정도 (평균)		1.2	1.2	1.2
종교유무	없음	35.8	39.7	38.7
	있음	64.2	60.3	61.3
취업상태	비취업	74.4	61.8	65.2
	취업	25.6	38.2	34.8
경제형편	어려운 편이다	41.1	46.4	45.0
	보통이다	54.0	48.4	49.9
	넉넉한 편이다	4.9	5.2	5.1
배우자유무	무배우자	47.4	33.2	37.0
	유배우자	52.6	66.8	63.0
아들 수 (평균)		2.2	2.1	2.0
별거자녀 연락빈도	거의 주고받지 않음	2.4	1.6	1.8
	3개월에 한두 번	4.2	2.3	2.8
	한달에 한두 번	22.4	16.0	17.7
	일주일에 한 번	28.9	26.0	26.8
	일주일에 두세 번	23.3	29.4	27.8
	거의 매일 연락	18.7	24.6	23.1
동거자녀 관계만족도 (평균)		3.7	-	-
동거자녀 교환형태	쌍방향	83.3	-	-
	무교환형	4.1	-	-
	수급형	7.2	-	-
	공급형	5.4	-	-
별거자녀 관계만족도 (평균)		3.8	3.8	3.8
별거자녀 지원교환형태	쌍방향	71.1	72.1	71.8
	무교환형	18.6	15.7	16.5
	수급형	7.6	9.4	8.9
	공급형	2.7	2.8	2.8

는 단체의 개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1개 이상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의 경우, 사례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상태는 현재 취업여부를 물었으며, 그 결과 자녀별거노인에게서 취업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자녀별거노인에게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다. 이는 자녀별거노인들의 취업활동이 생계를 위한 것임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

배우자유무의 경우, 자녀별거노인에게서 유배우자 비율이 높다. 생존하고 있는 아들의 수는 대체로 2명 정도이다. 별거하는 자녀와의 연락빈도를 보면, 7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별거자녀의 경우에는 별거하고 있는 여러 자녀들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자녀의 점수를 대표값으로 선택하였다. 자녀동거노인들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에게 만족하는 점수값이 3.7,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에게 만족하는 점수값이 3.8로 나타났다.

세대간 지원교환형태는 노인응답자와 동거자녀, 별거자녀와의 교환활동을 나타내는 항목들을 이용해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원을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도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⁴⁾ 경제적 도움을 세대간 지원교환 형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교환활동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노인들의 경제적 도움 정도를 일반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각 영역에 대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 자녀에게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4가지 응답을 ‘그렇다/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묶어 이분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동거자녀와 별거자녀 각각에 대해 세대간 지원교환의 유형을 쌍방향, 수급형, 공급형, 무교환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분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거자녀와 별거자녀 모두 쌍방향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동거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세대간 지원교환형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무교환형인 경우가 동거자녀는 4.1%, 별거자녀는 18.6%로 별거자녀와의 비율이 더 높았다. 동거하고 있는 자녀들은 노부모와 매일 대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

4) 각 영역에서 사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서적 지원: 나는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주었다/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나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주었다. ② 도구적 지원: 나는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청소, 식사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포함), 세탁 등의 도움을 주었다/나는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청소, 식사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포함), 세탁 등의 도움을 받았다. ③ 신체적 지원: 나는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 동행 등의 도움을 주었다/나는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 동행 등의 도움을 받았다.

교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므로 상호간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공급형은 별거자녀(2.7%)보다는 동거자녀(5.4%)에게서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녀와의 동거가 노부모의 의존이 아닌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IV. 분석결과

다음의 <표 2>는 자녀동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녀동거-모형1>은 기본모형으로 기존연구들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적 수준의 변수만을 분석한다. <자녀동거-모형2>는 동거자녀, 별거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한 것이고, <자녀동거-모형3>에서는 해당 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였다.

먼저 <자녀동거-모형1>의 결과를 보면, 성,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아들수를 제외한 변수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은 낮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은 높다. 또한 관리직이나 전문직중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이 더 높다.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아통합감이 더 높다.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도 높다. 현재 취업중인 노인들에게서 자아통합감은 높으며, 주관적 경제평가와 자아통합감은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과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자아통합감도 높다.

동거자녀와 별거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추가한 <자녀동거-모형2>에서도 앞서 <자녀동거-모형1>에서 언급한 결과들이 발견된다. 다만, 별거자녀와의 연락빈도의 유의수준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별거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별거자녀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동거-모형1>의 변인들을 통제 한 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자아통합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동거자녀와 별거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를 추가한 <자녀동거-모형3>에서도 대

〈표 2〉 자녀동거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자녀동거-모형1		자녀동거-모형2		자녀동거-모형3	
	b	s.e.	b	s.e.	b	s.e.
(상수)	22.197	0.814	17.582	0.882	17.473	0.896
성별 (준거: 여성)	0.096	0.154	0.127	0.151	0.249*	0.151
연령	-0.068***	0.009	-0.070***	0.009	-0.057***	0.009
교육수준 (준거: 무학)						
초등학교	0.590***	0.152	0.533***	0.150	0.482***	0.149
중학교	0.983***	0.212	0.887***	0.208	0.895***	0.206
고등학교이상	1.200***	0.229	1.118***	0.225	1.039***	0.223
관리직/전문직 (준거: 아님)	0.814***	0.276	0.852***	0.271	0.876***	0.269
건강상태 (준거: 건강하지 않는 편)	2.341***	0.128	2.200***	0.126	2.157***	0.125
사회활동 참여정도	0.918***	0.080	0.879***	0.079	0.866***	0.078
종교유무 (준거: 없음)	-0.080	0.140	-0.050	0.137	-0.069	0.136
취업상태 (준거: 비취업)	0.637***	0.145	0.711***	0.142	0.666***	0.142
경제형편 (준거: 보통)						
어려운 편	-2.031***	0.126	-1.728***	0.126	-1.708***	0.126
넉넉한 편	1.625***	0.280	1.446***	0.275	1.441***	0.272
배우자유무 (준거: 무배우자)	0.093	0.148	0.125	0.146	0.098	0.145
아들 수	0.036	0.054	0.062	0.053	0.062	0.053
별거자녀 연락빈도	0.201***	0.049	0.101**	0.049	0.071	0.050
동거자녀 관계만족도			0.587***	0.084	0.570***	0.086
별거자녀 관계만족도			0.730***	0.101	0.646***	0.103
동거자녀 지원교환형태 (준거: 쌍방향)						
수급형					-0.892***	0.228
지원형					-0.429	0.358
무교환형					-0.353**	0.170
별거자녀 지원교환형태 (준거: 쌍방향)						
수급형					-1.351***	0.243
지원형					-0.116	0.266
무교환형					0.019	0.304
R ²	0.349		0.375		0.386	

주: * p<0.10, ** p<0.05, *** p<0.01

체로 〈자녀동거-모형1〉과 〈자녀동거-모형2〉의 결과들이 일관적으로 발견된다. 다만, 별거자녀와의 연락빈도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별거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별거자녀와의 지원교환유형에 상당 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동거-모형3〉에서 나타난 지원교환형태의 효과를 동거자녀와 별거자녀로 나누어보았다. 우선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쌍방향에 비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수급형과 아무런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 무교환형에서 자아통합감이 낮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도 쌍방향에 비해 수급형의 자아통합감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세대간 지원

〈표 3〉 자녀별거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n=10,036)					
	자녀별거-모형1		자녀별거-모형2		자녀별거-모형3	
	b	s.e.	b	s.e.	b	s.e.
(상수)	20.404	0.524	18.461	0.543	18.976	0.547
성별 (준거: 여성)	0.118	0.088	0.149*	0.087	0.214**	0.087
연령	-0.060***	0.006	-0.061***	0.006	-0.057***	0.006
교육수준 (준거: 무학)						
초등학교	0.959***	0.094	0.942***	0.093	0.897***	0.093
중학교	1.348***	0.133	1.330***	0.132	1.292***	0.132
고등학교이상	1.812***	0.138	1.763***	0.137	1.679***	0.136
관리직/전문직 (준거: 아님)	0.618***	0.159	0.618***	0.158	0.658***	0.157
건강상태 (준거: 건강하지 않는 편)	1.837***	0.079	1.792***	0.078	1.760***	0.078
사회활동 참여정도	0.754***	0.049	0.717***	0.048	0.717***	0.048
종교유무 (준거: 없음)	-0.105	0.084	-0.109	0.083	-0.145*	0.083
취업상태 (준거: 비취업)	0.714***	0.079	0.678***	0.079	0.651***	0.078
경제형편 (준거: 보통)						
어려운 편	-1.731***	0.080	-1.587***	0.080	-1.562***	0.080
넉넉한 편	1.756***	0.168	1.688***	0.167	1.691***	0.166
배우자유무 (준거: 무배우자)	0.594***	0.089	0.530***	0.088	0.506***	0.088
아들수	0.076**	0.034	0.062*	0.033	0.069**	0.033
별거자녀 연락빈도	0.310***	0.031	0.216***	0.032	0.190***	0.032
별거자녀 관계만족도			0.655***	0.053	0.551***	0.054
별거자녀 지원교환형태 (준거: 쌍방향)						
수급형					-1.239***	0.125
지원형					-0.275	0.216
무교환형					-0.720***	0.106
R ²	0.348		0.358		0.365	

주: * p<0.10, ** p<0.05, *** p<0.01

교환형태가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가 자아통합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은 자녀별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자녀별거노인들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별거자녀와의 관계만족도와 지원교환형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별거-모형1〉을 보면, 성과 종교유무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동거-모형1〉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변인들이 유사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별거노인의 경우, 배우자유무와 아들수의 효과가 더 나타나고 있다. 자녀별거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게서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들수가 많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다. 이는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일수록 배우자와 자녀수가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포함한 <자녀별거-모형2>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별거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또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동거-모형2>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녀동거노인의 자아통합감이 그들의 별거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별거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를 추가한 <자녀별거-모형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성별의 효과가 약한 수준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자녀별거노인들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자아통합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별거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 영향을 살펴보면, 쌍방향에 비해 수급형이나 무교환형에게서 자아통합감이 더 낮다. 이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들과 지원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쌍방향의 유형이 자녀로부터 받기만 하는 수급형보다 노인들의 자아통합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동거-모형3>에서는 제시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V. 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녀동거노인과 자녀별거노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서 자아통합감이 높다. 이와 함께 자녀와 동거하든 별거하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 또한 높다. 또한 세대간 지원교환이 일방적이거나 전혀 없을 때 보다는 서로 주고받을 경우에 노인들의 자아통합감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자녀와의 관계를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합해서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동거노인과 자녀별거노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녀동거노인의 경우 함께 살고 있는 자녀 뿐 아니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 또한 자아통합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녀동거노인들을 연구할 때 간과되기 쉬운 별거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앞으로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는 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가족원(예컨대, 배우자)이나 친지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중요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은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노년기의 가족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측정도구와 자료수집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노인개인의 가족관계는 일대다(一對多)로 묘사될 수 있다. 예를들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별거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만족도가 높은 자녀를 선택하였다. 아마도 총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각각의 자녀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3) “한국여성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31-146.
- 공수자·이은희·하미옥 (2005)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0(겨울): 141-169.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순이·이정인 (2009)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대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1): 231-242.
- 김정석 (2001) “제4장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구성”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151-186.
- (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30(1): 1-24.
- 김정석·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정순 (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강연옥·유경·이주일 (2009)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15-130.

- 김후경·이순철·오순철 (2007)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17-32.
- 김희경 (2006)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8(1): 24-35.
- 민기채·이정화 (2008)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차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3): 515-533.
- 손의성 (2006) “노인이 인지한 자녀지원, 자녀관계 만족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자립적인 삶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3(2): 67-94.
- 손정연·한경혜 (2012) “노년기 여성의 결혼지위와 건강에 관한 중단 연구: 연령 및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 211-238.
- 송지은·Marks, Nadine F. (2007) “결혼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0(1): 25-47.
- 여인숙·김춘경 (2006)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2(2): 79-104.
- 윤현숙 (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이미란·김선희 (2012) “연령집단과 인구사회적 특성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대한가정학회》 41(4): 57-69.
- 이민아·김지범·강정환 (2011) “동거형태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29: 41-67.
- 이정의 (2010)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3): 709-726.
- 이형실 (2003)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 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3.
- 장성옥·공은숙·김귀분·김남초·김주희·김춘길·김희경·송미순 (2004)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4(7): 1172-1183.
- 장혜경·손정남·차보경 (2004)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3(1): 64-71.
- 정기원 (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 조윤주 (2007) “생산적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0(2): 23-44.
- Edikson, Erik H.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NY: Norton paperback.

- Fishman, S. (1992) "Relationship among an Older Adult's Life Review, Ego Integrity, and Death Anxiety"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4(2): 267-277.
- Hannich, Hans-Joachim (2011) "A Salutogenic Analysis of Developmental Tasks and Ego Integrity vs. Despair"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3(4): 351-369.
- James, Jacquelyn Boone and Nicole Zarrett (2006) "Ego Integrity in the Lives of Older Wom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2): 61-75.
- Lee, Min-Ah and Margaret J. Weber (2000) "Intergenerational Reciprocal Care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3): 129-142.
- Lowenstein, Ariela, Ruth Katz and Nurit Gur-Yaish (2007) "Reciprocity Child Exchan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 63(4): 865-883.
- Yunong, Huang (2012) "Family Relation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wo Different Hukous in China" *Ageing and Society* 32(1): 19-40.

[2013. 3. 4 접수 | 2013. 5. 18 심사(수정) | 2013. 5. 22 채택]

<부표 1> 자이통합감 설문문항

분류	번호	문항
현재 생활의 만족	1	나는 연배가 비슷한 다른 사람에 비해 행복한 편이다
	2	지금 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이다
	3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생애 대한 태도	4	나는 앞으로의 생활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게 느껴진다*
	5	나는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이미 계획하고 정해 놓았다
지난 인생 수용	6	나는 지금까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지혜로운 삶	7	나는 무슨 일이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
	8	연장자의 지혜나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죽음과 노령 수용	9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여한이 없다*
	10	늙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고 쓸모없어 지는 것이다*

주: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Self-Integrity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ren

Hyung Ju Choi · Cheong-Seok Kim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 in old age would be critical for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self-integrity of the elderly is affected by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ren focusing on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satisfaction with the children and patterns of support exchange between generations. It runs separate analysis for the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and the elderly living apart from children, since the living arrangement reflects and conditions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 mentioned as above. The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2008 Korean National Survey of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The analysis of the elderly coresiding with children (n=3,675) reveals their self-integr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extent of satisfaction with children living together or living apart. It is found that self-integrity of the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is lower when they are only receiving support from children or there is no flow of support between generations. The analysis of the elderly living apart from children (n=10,036) shows similar results. The self-integr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the types of support exchang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gardless of living arrangements, the self-integrity in old age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mutual exchange of support between generations.

Key Words: Psychological Well Being, Satisfaction with Children, Support Exchange between Generations, Living Arrangements in Old Age